

## 호남인구 5,249,728명 충청권에 5,250,136명 추월 당했다

광주와 전남·북의 인구가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당했다. 전통적인 곡창지대 호남의 인구가 충청보다 적어진 것은 지난 1925년 이후 처음이다. 호남은 지속적인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정부 부처 이주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 세종시 효과에 대거 유입 나주혁신도시는 지지부진 호남권 정치적 위상 약화

이 같은 지역간 인구 역전은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호남(광주 147만 1801명, 전남 190만6335명, 전북 187만1592명)의 인구는 524만9728명인데 비해, 충청도(대전 152만9085명, 충북 156만7548명, 충남 203만6661명, 세종시 11만6842명)는 525만136명으로 충청권이 408명 많았다.

### 박인비 시대 메이저 연속 우승 ▶ 14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25년 당시 광주의 인구(2만3734명)는 대전(8614명)보다 3배가량 많았고, 호남 전체 인구(352만7523명)도 충청도(212만9514명)보다 139만8009명이 더 많았다.

충청은 최근 잇따라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세종시 인구가 더해지면서 호남의 인구를 앞지른 것이다. 내년 말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면 충청 인구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주에 조성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는 조성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육을 완공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업무에 들어갔지만 직원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아 인구 유입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빛가람도시에 건립 중인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내년엔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 직원이 임시 거처에서 나올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인구 변화는 유권자 수 변화로 이어져 호남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유권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충청권의 지난해 19대 총선때 유권자 수는 406만1990명으로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전국 대비 유권자 비율이 10.1%로 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호남의 19대 총선 유권자 수는 411만217명으로 지난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유권자 비율이 1.1%포인트 하락한 10.1%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늘다보면, 유권자도 증가해 정치적 위상이 뒤바뀔 수 있다"면서 "빛가람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제2DJ센터 오늘 개관

개관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2컨벤션센터 1층 중앙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각 이미지로 표현하고, 어록을 새긴 벽돌 박스로 무등산 인석대를 형상화한 조대만 작가의 '미래를 향해'가 전시돼 있다. 총 560억원을 들여 9개월여 만에 완공한 제2컨벤션센터는 전체면적 1만850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대형공연이 가능한 30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3년만에... 다시 잠 못드는 이산가족

### 남북당국회담 의제 포함...추석 상봉 기대 광주 667명·전남 1009명 신청 '설레는 밤'

함경남도 정평이 고향인 김성연(80)씨는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해도 가족을 만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북 대화가 재개돼 막혔던 상봉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6·25를 겪으며 홀로 남함으로써 파란을 왔다. 떨어져 살면서도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던 김씨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적십자사가 20여년 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를 받을 때, 곧바로 신청했다. 일찍 신청하면 빨리 만날 수도 있

을 거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김씨는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여동생을 만났고 부모님을 비롯한 동생 2명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생이 건넌 가족사진을 보고 '너무 오래 못 봐 가족인데도 밖에서 보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다. 김씨는 "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모두 봐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승원(81·황해도 웅진)씨도 남

북대화 재개 소식을 들은 뒤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6.25 당시 어머니와 동생에게 "고향에서 식량을 가지고 오겠다"며 길을 나섰던 아버지와 형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을 볼 수 있다는 희망도 떨어져 이젠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왔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도 가족을 못 본체 상처만 더 받을 것이라며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8808명. 광주의 경우 667명(0.9%), 전남에서는 1009명(1.

4%)이 신청했다. 남북 양측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남북당국회담의 의제에 포함하면서 3년 가까이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될 경우, 올 가을 추석연휴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될 공산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산가족 신청자 중 고향에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의 비율이 전체의 43%인 5만5348명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가 아닌, 이산가족들에게 실질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남북당국회담 12~13일 서울서 개최

### 육로 방문...의제는 이견 정부 회담 준비 착수

남북 양측은 10일 새벽 판문점에서 끝난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 양측은 이번이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될 이번 고위급 남북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 타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각각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제와 관련, 남측 발표문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6·15 및 7·4 발표된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 남측 발표문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개최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몰라가 조영인자를 폭발적으로 케어하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몰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알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의약품안전성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유효성평가가 완료된 성분과 함께 구성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